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Life Stress and Family Values on Marital Stability
among Middle-Aged Couples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 교수 박주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s of family life stress and family values on marital stability among middle-aged couples. The subjects included a total of 302 men and women aged 45-64 who had been married for more than 20 years and were living in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with the SPSS 21.0 Package. First, Cronbach's alpha was calculated to measure the reliability of the scale that assessed the variables of the research model. Then,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to determine the degrees of family life stress, family values, and marital stability among the subjects. Finally, a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ed the subjects' marital stabilit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level of family life stress in middle-aged married men and women was slightly higher than the mean value. Of all the sub-scales of family life stress, the subjects were found to experience the most stress from factors related to financial pressure, followed by family relationships, a sense of loss within a family, and work-family compatibility. Therefore, financial problems were one of the critical stressors for middle-aged married couples. Also, for this demographic, the levels of family values and marital stability were higher than the medians.

*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 박주희(pjh@sungshin.ac.kr)

The factors affecting marital stability in middle-aged couples were identified to be family relationship stress, financial stress, subjective economic status, family values, stress related to work-family compatibility, religion, and age. The degree of marital stability was higher in middle-aged couples as their stress levels from family relationships and financial problems were lower. Moreover, the higher the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the more traditional the family values, the higher the degree of marital stability. Finally, married couples who were religious had a lower level of stress from work-family compatibility, and the younger the couples, the higher the degree of marital stability.

Key Words : 중년기 기혼커플 (middle-aged couples), 가족생활 스트레스 (family life stress), 가족 가치관 (family values), 결혼안정성 (marital stability)

I. 서론

오늘날 한국의 결혼과 가족은 그 구조, 기능, 가치관에 있어서 급변해가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거나 늦추고 있으며 기혼 부부의 이혼이 늘어나는 현상이다. 구체적으로 1990년 한국사회의 조이혼율은 1.1건에서 2003년 3.4건으로 최고 정점에 달한 뒤 2017년 현재에는 2.1건 정도의 수준으로 다소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중년세대의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통계청, 2018). 또한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남자 평균 이혼연령은 47.6세, 여자 평균 이혼연령은 44.0세이며 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은 3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20년 전인 과거에는 혼인지속기간이 길수록 이혼율도 낮아졌으나, 최근에는 결혼 20년 이상의 중년기와 황혼기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5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중년층 부부들의 이혼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결과는 그만큼 중년기 시기는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는 생애발달과정상 청년기의 활기와 자신감이 상실하고 각종 성인병을 진단받는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이시기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의 경험은 결혼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확

대되면서 2018년 현재 남자 78.2세, 여자 84.4세로(통계청, 2018) 은퇴 이후 부부로서 함께 생존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으며 자녀수 또한 줄어들어 따라 자녀가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지 기간(empty nest stage)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년기의 결혼생활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보다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중년기의 특성 및 결혼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중년기는 신체적 변화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이다(정옥분, 2008). 직업적으로는 수입이 가장 많아지고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중년기의 심리적 위축감과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김명자, 1989). 더욱이 중년기의 시기는 가족원 돌봄의 부담이 고조되기 때문에 돌봄에 대한 환경적 변화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어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중년기 가족원의 돌봄 문제는 나아가서 중년 부부의 미래 노후생활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노부모부담의 경우 2017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중 고령자의 비율은 27.3%를 차지하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 5.10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통계청, 2017). 중년기 코호트인

베이비 붐 세대의 부양부담에 대한 연구에서도 베이비부머 71%가 부모세대가 생존해 있는데 이 중 68%는 노부모에게 경제적 자원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43%는 지난 2년간 노부모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경혜, 2013). 또한 베이비부머 가계의 자녀 양육과 교육비의 지출과 보건의료비의 지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였다. 이처럼 중년기 기혼남녀는 노부모 부양부담과 자녀 부양부담으로 인해 가족생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결혼생활의 어려움도 겪게 된다.

중년기 결혼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생활의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중년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오늘날 중년세대는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급격한 가치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중년세대는 가족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배우자간의 역할기대에 있어서 더욱 심한 역할갈등을 겪을 수 있고 결혼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가족관에서 금기시하던 이혼 및 재혼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변해가고 있으며 중노년부부들을 중심으로 부부관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부부는 불행한 결혼을 유지시키는 것보다 상호간의 복리를 위해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김승권의, 2000). 따라서 중년세대의 가족가치관의 인식 수준은 결혼안정성에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반이 되는 행복한 결혼생활의 추구는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중요하다. 중·노년기 이혼의 증가현상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이현심, 2015)을 고려할 때 중년기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한 가족자원을 강화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부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신현주·전귀연, 2008). 결혼안정성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정선영, 2006; 조유리, 2000), 원가족과의 관계와 결혼의 안정에 관한 연구들(이영희·이윤주, 2011),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관련 특성 변인(윤나경, 2012)등에 초점을 두어 부부간의 관계나 개인·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결혼안정성을 탐구하였다. 결혼안정성의 의미가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이라는 관점(Booth, Johnson & Edward, 1983)으로 본다면 결혼안정성의 중요함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결혼의 안정적 유지는 부부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게 되지만 결혼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인식의 변화를 비롯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경제적 상황 등 다양한 인적·재정적·사회적 가족자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안정성은 그 영향이 개인적·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탐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생활을 위한 가족자원의 강화를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년기 부부의 이혼예방 및 건강한 결혼에 기여하고 가족결속력 강화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결혼안정성

결혼안정성에 관한 개념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 첫째, 결혼안정성을 결혼이 한 배우자의 사망에 의해 생애 주기적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등의 가족해체에 의하여 종결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Lewis & Spanier(1979)는 결혼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지속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결혼관계의 유지, 또는 붕괴라는 상반된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결혼안정성을 이혼할 의향이 있거나 현재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가를 보는 측면이다. Booth et al.(1983)은 결혼안정성을 결혼의 지속이나 해체의 어느 한쪽의 선택이 아니라, 연속상의 개념으로 보고 결혼생활에 대한 성향이 안정적 관계의 유지와 불안정한 상태의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즉 결혼안정성은 결혼관계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이며, 결혼의 불안정성은 부부가 현재의 역기능적인 결혼을 유지하기는 하나 장래에 결혼관계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 경우의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의 연구들에서도 윤경자(2010)와 윤나경,(2012)은 결혼의 불안정한 결혼을 건전한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역기능적인 결혼관계의 관점으로 보았다. 그 외 연구자들은 결혼안정성을 부부들이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의향의 정도로 정의하였다(박성은, 2010; 선희라, 2013).

한편, 부부들의 현재 결혼생활의 만족 또는 불만족과 관계없이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은 부부들에게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고 부부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 및 이혼 후의 불확실한 삶에 대한 염려로 실제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부부들의 결혼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장래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의향을 포함시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는 상이한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결혼생활의 다양한 인적·재정적·사회적 가족자원을 활용하여 성인기 이후 당면하는 인간발달상의 성적,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 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관계에서 느끼게 되는 자신의 욕구에 대한 충족 정도에 따라 결혼생활의 만족정도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결혼안정성은 결혼생활에서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장래결혼생활의 지속여부에 대한 의향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것은 반드시 부부들의 결혼의 긍정적인 경험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의 개념이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Gottman(1994)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유사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개념을 서로 다르게 구별하여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결혼안정성에 관련하는 다양한 특성과 요인의 규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결혼관계에 있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성향의 정도를 결혼안정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중년기 가족생활 스트레스 및 가족가치관

1) 중년기 가족생활 스트레스

(1) 중년기의 정의 및 특성

생애발달은 연속적 변화의 과정으로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인생주기의 어느 기간을 중년기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Havighurst(1972)는 생애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여 아동기 초기(0~6세), 아동기 중기(6~13세), 청소년기(13~18세), 성인기 초기(18~30세), 중장년기(30~60세), 노년기(60세 이후)의 단계별 특성과 과업을 설명하였다. Erikson(1968)은 40~65세를 중년으로 정의했다. 김명자(1989)는 40~

59세를 중장년기로 정의하고, 가족 주기적 관점, 개인적 발달의 관점, 사회적 관점에서 중년기의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년기의 구분은 학자마다 그 범위가 유동적이고 상이하여 명확한 구분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에 초점을 두고 은퇴 및 사회적 역할의 최종 시기를 65세 미만으로 판단하여 45세~64세를 중년기로 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인생에 있어 중년기의 시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획득과 수입에 있어서 절정기라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사회적·경제적인 성취보다는 은퇴에 대한 불안과 생애 주기적발달상 많은 기능의 하강을 느끼는 모순적인 시기로 볼 수 있다. Lamann & Riedmann(2009)는 중년기의 특성에 대해 자녀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자녀부양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시기이며, 경제적으로는 가장 소득이 높고 안정적이기는 하나, 노부모의 병환 등이 생기며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책임이 높아지는 시기로 규정하였다. Livson(1981)은 중년기의 뚜렷한 특징을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노화, 실직과 퇴직, 노후준비에 대한 부담과 불안,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에 직면함으로써 활력을 상실하고 심리적 불안이 높아지는 것 등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라고 하였다. Brim, Ryff & Kessler(2004)는 중년기 시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하였다. 중년기 시기의 이러한 전형적 특성들은 그들의 결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가족생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개인이 생애 주기적으로 당면한 다양한 역할기대와 수행을 중심으로 각기 경험하게 된다.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기 때문에 단일한 정의는 없으며 스트레스는 그 원인에 따라 중대한 생활사건(major

negative life events)에서 기인한 스트레스와 일상적 생활사건(minor daily hassles)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로 구분 할 수 있다(장은선, 2007). 중대한 생활사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란 본인이나 가족이 당면한 심각한 질병, 사랑하는 가족 및 주변인과의 이별, 직업의 상실 등과 같은 외상(traumatic)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반면에 일상적 생활사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는 일상적 생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생활사건인 직장에서의 직무수행 갈등, 일·가정 양립의 갈등, 가족과의 사소한 다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다. 일상적 생활사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는 중대한 생활사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보다 그 영향력은 적을 수 있으나 매우 빈번히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조하·신희천, 2009). 특히 중년기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절정기인 동시에 인생 후반부로 진행되는 시기이다. 중년기는 성장기 자녀의 독립과 및 노후생활 대책을 미리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조주용·송미영·이근선, 2009), 자녀의 결혼이 늦어지고 은퇴한 중년 후기 이후의 노후기간이 연장되면서 노년기를 앞둔 예비 노인들은 미래의 삶에 대한 대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박지수, 2007). 또한 가족관계 측면에서도 중년기에는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 이제까지 가능해 왔던 부모 역할이 축소되고 독립한 자녀의 빈자리로 인한 상실감을 경험하기 쉽다(김귀애·홍창희, 2012). 또한 중년 남성의 경우, 직장의 은퇴 및 실직은 자신의 존재감과 사회적 지위를 상실하는 사건으로 삶의 만족감이 저하되기 쉽다(이승원·김동배·이주연, 2008; 강양희, 2016). 취업 중년여성의 경우도 직장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지위상실과 소득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심리적 안정감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허제는·태영숙, 2014).

강인(1990)은 중년기는 가족관계에서 스트레스 발생빈도 및 스트레스 경험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과 관련한 갈등에서 기인한 생활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오명자, 2007).

정원길(2001)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주부의 경우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였고 전업주부의 경우는 자녀양육스트레스,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취업모의 경우 자녀돌봄에 대한 가족 지지자원이 부족할 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더욱 높은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ark & Liao, 2000). 박지현과 김태현(2011)의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중년기 가족생활 스트레스란 중년기에 경험하는 역할긴장 및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문제, 가족상실감, 경제적 문제, 알가정양립문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험 정도를 살펴보겠다.

2) 가족가치관

가치는 그 적용의 범위가 광범한 만큼 개념의 정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치는 ‘행위의 이용 가능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개념’이라고 정의된다(임희섭, 1994). 즉 가치관은 인간의 삶속에 내재하고 있어 사고, 행동, 태도 등에 대하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값어치를 부여하는 하는 것이다. 이는 선호와 구분되는 개념이기도하다. 예를 들어 현대인은 핵가족의 구조를 선호하지만 가족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는 전통적 가족 및 결혼관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경우이다. 이상의 가치관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족가치관이란 동일 세대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형성하는 가족에 대해 갖는 태도 및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족가치관은 같은 세대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에 초점을 둔 다수의

연구들을 보면(김경신·이선미, 1998; 이삼식, 2006), 배우자 선택 및 결혼의식 및 태도, 결혼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대체로 전통적 가족중심의 가족가치관이 개인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식 변화는 다분히 결혼생활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혜영 외(2007), 은기수(2005)의 연구결과 가족가치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이 결혼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기혼자들의 가족가치관 흐름이 그들의 결혼생활의 유지 및 안정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관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중년기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결혼안정성

가족생활 스트레스와 결혼생활에 관계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은 주로 결혼만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정은과 이영호(2000)는 남편이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전춘애와 박성연(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섭(2006)은 중년기는 소득보다 지출이 높아지는 시기로 재정적 압박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안정은 중년기 가족의 복지감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하였다. 임효영과 김경신(2001)은 기혼여성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 및 사회활동은 심리적 안정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 외 연구들은 중년기 이후의 결혼생활의 회의감과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혼 등 가족의 해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는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김시연·서영석, 2010; 김길현·하규수, 2012).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년기는 부부

관계, 자녀와 노부모 부양 등의 가족관계 측면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경제적 부담과 가족상실감,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도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중년기의 가족생활 스트레스의 경험은 부부의 결혼생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2) 가족가치관과 결혼안정성

가족주의가 강한 한국의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현대사회의 개인주의와 함께 뒤섞여 가족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하은하, 2002) 가족가치관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족가치관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직접 살펴 본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관과 결혼만족도에 초점을 둔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초기의 연구인 Lye & Biblarz의 연구(1993)에 따르면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부부일수록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부부에 비해서 부부의 결혼관계 만족 수준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ickelson, Claffey & Williams(2006)의 연구에서도 전업주부 아내들의 양성평등적인 성역할태도는 그들의 결혼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현과 박주희(2005)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양성평등한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부부들에 비해 부부들의 부부관계 만족도, 의사소통 만족도, 갈등해결 만족도 등 전체적인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운정(2007)의 국제결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국제결혼부부의 남성은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을 지닐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한 부부의 과반수 정도가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실태로 나타났다(통계청, 2018). 이는 성격차이의 그 내면에 가치관, 생활양식, 신념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합리적인 가족가치관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가족자원으로 예측된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교육 및 생활수준, 종교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안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경자, 2010; 정연표·이홍직, 2011; 김송미, 2012). 반면 성별에 따른 결혼안정성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어(서해정, 2008; 이소영, 2010)도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령과 결혼안정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들을 보면, Martin & Bumpass(1989)는 결혼생활의 질과 안정성을 가장 잘 예측한 수 있는 요인으로 연령을 지적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은(김득성, 1992; 조은영, 2003)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Heaton(2002)도 연령적으로 성숙에 이른 다음 결혼할 경우 결혼의 안정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홍백의 외(2009)의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과 결혼안정성은 부적관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김태현과 전길양(2002), 임은혜(200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박성은(2010)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결혼안정성과 유의미적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교육수준에 따른 결혼안정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치되지 않았다.

또한 종교의 경우 김미숙과 김명자(1990)의 연구에서 일치하는 종교를 갖는 부부가 일치하지 않는 종교를 갖는 부부에 비하여 결혼안정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Heaton & Albrecht(1991)는 종교생활의 참여 유무는 이혼과 별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선정 및 표집방법

중년기 기혼남녀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45세~64세 이하에 해당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하였으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연구자 및 보조연구원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기혼남녀 3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한 30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가 직접 설문에 답을 기입하는 자기보고식(self-administred) 방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를 거쳐 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여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02)

변인	분류	N	%
성별	남성	109	36.1
	여성	193	63.9
연령	40대	140	46.4
	50대	112	37.1
	60대	50	16.6
학력	고졸이하	128	42.4
	대졸	137	45.4
	대학원졸이상	37	12.3
종교	유	223	73.8
	무	79	26.2
주관적 경제수준	나쁜편이다	17	5.6
	보통이다	199	65.9
	좋은편이다	86	28.5
계		302 [*]	100.0

* 무응답으로 사례수가 다를 수 있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 종교, 주관적 생활수준을 분석 결과(표1)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63.9%, 남성이 36.1%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40대가 46.4%, 50대 37.1%, 60대는 16.6%로 나타났고 평균연령은 약 53.4세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고졸 이하가 42.4%, 대졸이 45.4%, 대학원 졸 이상은 12.3%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있다가 73.8%,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였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다가 65.9.3%, 좋은 편이다 28.5%, 나쁜편이다 5.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는 결혼안정성 척도는 Booth et al. (1983)의 척도를 전춘애(1994)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려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결혼안정성은 결혼생활이 시간을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최근 1년 이내에 결혼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였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관계에 대한 정서적·인지적 평가에서 실제 이혼이나 별거 고려 등 행동적 성향까지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긍정적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역코딩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안정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1) 가족생활 스트레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족생활 스트레스는 McCubbin 등(1982)이 개발한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를 박지현(2009)이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족관계 영역 8개 문항, 경제문제 영역 4개 문항, 일-가족양립문제 영역 4개 문항, 가족상실감문제 영역 2개 문항의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생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모든 문항을 역코딩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신뢰도는 본 연구에서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 $\alpha = .85$ 로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별 신뢰도에서는 가족생활 영역은 Cronbach $\alpha = .80$, 경제문제영역은 Cronbach $\alpha = .77$, 건강 및 가족상실감 영역은 Cronbach $\alpha = .74$, 일-가족양립영역은 Cronbach $\alpha = .68$ 로 나타났다.

(2) 가족가치관

가족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미정과 정혜은(2010)이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로서, ‘매우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가끔 그렇다’ 3점, ‘거의 그렇지 않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자녀 필요성 문항을 제외하고 역코딩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가족가치관을 의미한다. 가족가치관의 각 총 점수는 중간점수 3점을 기준으로 3점 보다 높은 경우 전통적 가족가치관으로, 3점 보다 낮은 경우는 현대적 가족가치관의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가치관은 Cronbach $\alpha = .74$ 로 나타났다.

3) 통제변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선행 연구에서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교육수준, 종교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표 2〉 측정도구 및 신뢰도

	변수	문항	신뢰도
독립 변수	가족관계스트레스	8	.80
	경제문제스트레스	4	.77
	일-가족양립스트레스	4	.68
	가족상실감스트레스	2	.74
	전체	18	.85
종속변수	가족가치관	6	.74
	결혼안정성	10	.88
통제변인	성별(남자=1, 여자=2) 연령(연속변수) 교육(1=고등졸, 2=대졸, 3=대학원졸 이상) 주관적 경제수준 (1=하, 2=중, 3=상) 종교(1=있음, 0=없음)	5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coding)과 오류검토 작업을 한 후, SPSS 21.0 Package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각 변수를 측정하는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

본 연구에서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전체 평균 3.07점(SD=.58)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 3.13점(SD=.79)로 가장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족관계 스트레스요인이 3.11점(SD=.64),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요인 3.02점(SD=.94), 일가정양립 스트레스가 요인이 3.01점(SD=.58)의 순으로 중년기 기혼남녀가 경험하는 가장 높은 스트레스는 경제적 스트레스 영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가치관의 경우 3.31점(SD=.64)로 나타났으며 결혼안정성은 3.24점(SD=.84)으로 나타나 각각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즉, 조사대상 기혼남녀의 경우 가족가치관은 다소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결혼생활 역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결혼안정성의 전반적 경향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가족생활 스트레스	3.07	.58
가족생활 스트레스		
경제문제 스트레스	3.13	.79
가족관계 스트레스	3.11	.64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3.02	.94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3.01	.58
가족가치관	3.31	.63
결혼안정성	3.24	.84

2.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 영향 요인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특성이 결혼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통한 다중공선성을 살펴본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또한, Durbin-Watson 계수를 통하여 다중공선성을 점검한 결과 각각 2.03, 2.09로 2에 가까운 값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다음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먼저 〈모델1〉은 통제변인인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결혼안정성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표 5〉와 같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37.0%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주관적 경제수준($\beta = .36, p < .001$), 연령($\beta = -.17, p < .001$), 종교($\beta = .16, p < .01$), 성별($\beta = .16,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경제수준, 연령, 종교, 성별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가 있는 경우, 남성인 경우가 결혼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2〉는 통제변인,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설명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이다(표 5). 그 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들의 전체 설명력은 53.0%로 1단계에서 보다 16.0%p 증가하였다. 각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t값의 유의확률을 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beta = -.60, p < .001$), 경제적 스트레스($\beta = -.41, p < .001$), 주관적 경제수준($\beta = .32, p < .001$), 가족가치관($\beta = .26, p < .001$), 일가정 양립스트레스($\beta = -.25, p < .01$), 종교($\beta = .18, p < .001$), 연령($\beta = -.16,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

났으며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일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가정 양립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종교가 있을 때,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 가족관계스트레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1									
2. 연령	-.26**	1								
3. 교육	.07	.14 [†]	1							
4. 생활수준	.12 [†]	.04	.14 [†]	1						
5. 종교	.12 [†]	.06	.05	-.06	1					
6. 가족관계 스트레스	-.05	.13	-.21**	-.15 [†]	-.30**	1				
7. 경제 스트레스	.03	.18 [†]	-.15 [†]	-.14 [†]	-.15 [†]	.75**	1			
8.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04	.06	-.10	.22**	-.28**	.77**	.52**	1		
9.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07	.10	.03	-.22**	-.11*	.54**	.39**	.11 [†]	1	
10. 가족가치관	.24**	-.19 [†]	.12 [†]	.35**	-.11*	.17 [†]	-.25**	.01	.09	1

[†]p<.05, **p<.01

〈표 5〉 결혼안정성 영향요인 분석 결과

변수	결혼안정성				
	모델 I		모델 II		
	B	β	B	β	
인구사회학적변인	성별 ¹⁾	.19	.16**	.07	.05
	연령	-.03	-.17***	-.03	-.16**
	주관적 경제 수준	.36	.36***	.32	.32***
	교육수준	.02	.15	.02	.04
	종교 ²⁾	.22	.16***	.25	.18**
가족스트레스	가족관계 스트레스			-.62	-.60***
	경제문제 스트레스			-.39	-.41***
	일가정양립 스트레스			-.20	-.25**
	가족상실감 스트레스			.05	.07
가족가치관			.25	.26***	
상수	3.91		3.41		
Adjusted R ²	.370		.530		
F	30.49**		28.41***		
dw	2.03		2.09		

주: ¹⁾ 남성=1, 여성=0, ²⁾ 유=1, 무=0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생활 유지 20년 이상이 된 중년기 기혼남녀 3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조사대상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 생활스트레스 전체 평균은 3.07점(SD=.58)으로 중간값 3점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경제문제 스트레스 요인이 3.13점(SD=.79)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시기가 자녀교육비를 비롯해 노부모지원의 부담, 은퇴를 앞둔 상황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되는 상황임을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중년기 기혼남녀의 가족가치관의 경우 3.31점(SD=.64)으로 전통적 가족가치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김혜영 외(2007)과 은기수(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결혼안정성에서도 3.24점(SD=.84)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관계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즉,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는 가족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 시기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는 가족의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경제적 관련 요인들이 결혼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안정된 경제활동에 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 때 결혼안정성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결혼안정성도 달라 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대상자의 가족가치관이 근대적이기 보다는 다소 전통적 가족가치관

의 경향으로 나타났고 전통적 가족가치관이 개인이나 사회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즉, 가족은 개인적인 욕구 충족이나 정서적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에 비추어 볼 때(옥선화·진미정, 2011) 결혼안정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부부들 역시 지속적으로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은 결혼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들 일부가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다는 일부 선행연구들과(김득성, 1992; 조은영, 2003) 불일치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를 통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안정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최근 중년기 초기보다는 후기로 갈수록 부부들이 황혼이혼, 졸혼으로 결혼생활을 끝내는 위험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의 인적자원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종교가 있을 경우 결혼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종교가 결혼생활의 유지에도 유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가족복지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회는 최근 국내외적 경제 위기가 가속화 되는 과정에서 특히 가장 생산성이 높아야 할 생애단계에 있는 중년층들이 조기 퇴직 및 해고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 역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가족원을 위한 부양비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에 임금절벽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의 개선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곧바로 결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년층의 고용안정성을 비롯한 소득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 가족관계스트레스는 결혼안정성을 위협하는 매우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통합에 도움이 되는 가족단위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의 원활한 역할 수행과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가족복지서비스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년기 기혼자들의 가족관계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유지 및 노년기 이후의 부부관계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이 중년기 기혼남녀의 주요 가치로 작동할 때 결과적으로 결혼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가 급격히 변화해 가는 과정 속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집합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해 가고는 있지만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전통적 가족가치관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가치관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중년기 결혼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주의 가치관에 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져 중년기 결혼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결혼생활에 유용성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년기 부부의 행복에 기반한 안정된 결혼생활을 유지할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실천적 개입이 요청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상담 및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이 중년기 부부의 부부관계와 가족자원을 실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 기적 징후를 사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결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중년기 기혼남녀가 경험하는 결혼안정성은 단일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 받기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기혼남녀 각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중년기 기혼남녀가 결혼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은 단일한 속성에 의하기 보다는 각자 처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사례의 특성이 반영된 가족자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연구에서는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중년기 결혼안정성 및 가족생활 스트레스, 가족가치관의 성별, 연령별 차이에 초점을 둔 연구 역시 중년기 결혼생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의미가 크므로 후속연구를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사는 중년 기혼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특히 가족생활스트레스, 가족가치관과 결혼안정성은 지역적 편차가 크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집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의 경향 및 관련 영향요인을 규명을 통해 안정된 결혼생활의 가족자원을 탐구하는데 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1) 강양희(2016). 중년남성의 가족지지 및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2), 344-353.
- 2) 강인(1990), 중년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경신·이선미(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4) 김귀애·홍창희(2012). 중노년기 여성의 우울에

- 성인 자녀와의 갈등과 통제 전략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03-321.
- 5) 김길현 · 하규수(2012).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5), 256-271.
 - 6) 김득성(1992).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의 관계: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미숙·김명자(1990). 도시부부의 결혼안정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 173-183.
 - 8) 김명자(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송미(2012). 빈곤결혼이민 여성의 결혼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레질리언스 관점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승권 · 조애조 · 이삼식 · 김유경 · 송인주 (2000).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김시연 · 서영석(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03,
 - 12) 김태현 · 박주희(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 13) 김태현 · 전길량(2002). 노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성생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21(5), 133-143.
 - 14) 김혜영 · 신보영 · 진미정 · 사공은희(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5) 박성은(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안정성 관련변인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6) 박지수(2007). 중년후기 성인이 지각하는 여가 제약, 여가충족,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50세~64세 중년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박지현(2009). 중년기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8) 박지현 · 김태현(2011). 중년기의 가족스트레스 및 가족탄력성이 사회적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1), 229-257.
 - 19) 서해정(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 선희라(2013).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신현주 · 전귀연(2008).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2), 195-227.
 - 22) 신혜섭(2006). 중년기 위기와 가족 스트레스, 생활과학연구, 11, 84-90.
 - 23) 오명자(2007). 중년기 여성의 주부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4) 옥선화 · 진미정(2011). 가족가치관과 생활문화의 세대 비교: 가족의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9(4), 67-76.
 - 25) 윤경자(2010).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인구학, 33(2), 137-163.
 - 26) 윤나경(2012). 원가족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결혼안정성: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비교,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보건복지포럼, 25-35.
 - 28)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40.
 - 29) 이소영(2010). 결혼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가족건강성 요인 연구. 사회복지실천, 9, 5-32.
 - 30) 이승원 · 김동배 · 이주연(2008). 중 · 고령자의 은퇴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관계만 족

- 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1), 107-125.
- 31) 이영희 · 이윤주(2011).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분화, 부부친밀감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1), 43-58.
- 32) 이정은 ·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531-548.
- 33) 이현심(2015). 황혼이혼 여성노인에 대한 사례 연구. 노인복지연구, 68, 85-106.
- 34) 임은혜(2003). 중년기 기혼남녀의 결혼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5) 임효영 · 김경신(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사회적 지지원망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9(12), 189-203.
- 36)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나남출판사.
- 37) 장운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8) 장은선(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비합리적 신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0) 전춘애 · 박성연(1996). 자녀양육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41) 정선영(2006). 부부갈등과 갈등표출방식의 상호작용이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42) 정연표 · 이홍직(2011). 노년기 부부의 결혼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GRI 연구논총, 13(2), 151-180.
- 43) 정옥분(2008). 성인 · 노인심리학, 서울. 서울: 학지사.
- 44) 정원길(2001). 기혼여성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조은영(2003). 기혼남녀의 결혼의 질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7) 조추용 · 송미영 · 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48) 조하 · 신희천(2009).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자살 사고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1011-1026.
- 49) 진미정 · 정혜은(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 50)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2015-2065년).
- 51) 통계청(2018). 2017 혼인이혼통계.
- 52) 하은하(2002). 가족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가족개념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3) 한경혜(2013). 베이비부머 삶의 변화와 지속성, 2010-2012.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 메트라이프 재단.
- 54) 허제은 · 태영숙(2014). 중년여성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6(2), 181-190.
- 55) 홍백의 · 박은주 · 박현정 · 박진(2009). 결혼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307-328.
- 56) Booth, A., Johnson, D., & Edwards, J. N. (1983). Measuring marital in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2), 387-394.
- 57) Brim, O.G., Ryff, C.D., & Kessler, R.C. (2004). How healthy are we? A national study of well-being at midlife, Chicago, IL: The University

- of Chicago Press.
- 58) Erikson, E. H. (1968). Life cycl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9, 286-292.
- 59)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L. Erlbaum, USA.
- 60) Havighurst, Robert, T.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 61) Heaton, T. B. (2002). Factors Contributing to Increasing Marital Stability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Family Issues, 23, 3, 392-409.
- 62) Heaton, T. B., & Albrecht, S. L. (1991). Stable unhappy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47-758.
- 63) Lamanna MA, Riedmann A. (2009). Marriages and families: Making choices in a diverse society, 2009, Belmont: Wadsworth.
- 64)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pp. 268-294).
- 65) Livson, F. B. (1981), Paths to psychological health in the middle years: Sex differences, in Present and past in middle life, (New York: Academic Press, 195-222.
- 66) Lye, D. N., & Biblarz, T. J. (1993). The effects of attitudes toward family life and gender roles 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4(2), 157-188.
- 67) Martin, T. C., & Bumpass, L. L. (1989). Recent trends in marital disruption. Demography, 26(1), 37-51.
- 68) McCubbin HI, Patterson, J. M., Wilson, L. R. (1982). FILE: Family inventory of life changes.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 (Olson, D., McCubbin H. I., Barnes, H., Larson, A., Muxen, M., editors. Family inventories).
- 69) Park, J., & Liao, T. F. (2000). The effect of multiple roles of South Korean married women professors: Roles changes and factors which influence potential role gratification and strain. Sex Roles, 43(7/8), 571-589.

- 투 고 일 : 2018년 09월 01일
- 심 사 일 : 2018년 09월 25일
- 게재 확정 일 : 2018년 11월 14일